

# 김성태 ‘군기잡기’... 임종석 “화풀이 하시나”

국회 운영위 靑 업무보고  
청와대 vs 한국당 신경전  
김, 강원랜드 수사 등 맹공  
임 “靑 수사지휘 안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등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업무보고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괴역·보복수사 중단하라’고 적힌 항의 문구를 노트북 화면에 부착한 채 회의에 참여했다.

한국당 과상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는 2016년 2월 수사가 의뢰된 지 3년째”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업정 수사를 얘기하니 관련자 압수수색이 다시 이뤄지고 있는데, 권력을 이렇게 행사해도 되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전직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강원랜드 채용비리(관여된) 실세였다고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다”라고 물으며 “이런 것은 수사를 안 하고, 권성동·염동열 의원만 수사하니 정치보복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20대 국회에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민주당은 의원직 박탈 판결 내리진 않잖아”며 여야 탄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청와대가 검찰 수사 사안에 대해 수사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권력남용이 아닌가”라며 “수사 중단 요구는 청와대에 불법행위를 요청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

리를 높였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은 “어제의 범죄(외압)를 벌하지 않는 건 내일의 범죄에 용기 주는 것”이란 알베르 까뮈의 말을 인용한 뒤, “수사를 중단하라고 하거나 더 하라고 하거나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런 정치적 외압에서 막아주는 게 청와대 역할”이라고 반격했다.

답변에 나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강원랜드의 엄청난 규모 채용비리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며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검찰이 판단하며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수사 지휘는 불가능하다. 그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자유한국당 다섯

명의 의원직 박탈 관련한 건 수사, 기소 리를 높였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은 “어제의 범죄(외압)를 벌하지 않는 건 내일의 범죄에 용기 주는 것”이란 알베르 까뮈의 말을 인용한 뒤, “수사를 중단하라고 하거나 더 하라고 하거나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런 정치적 외압에서 막아주는 게 청와대 역할”이라고 반격했다. 답변에 나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강원랜드의 엄청난 규모 채용비리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며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검찰이 판단하며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수사 지휘는 불가능하다. 그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자유한국당 다섯

분위기를 이어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법이든 미국 쪽과 소통하면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운영위에서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성태 운영위원장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간에 기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물고 물리는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날 오후 회의에서 임 실장을 증언대로 불러 세우는 등 일종의 ‘군기 잡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에 임 실장은 “왜 화를 저에게 푸시는지 모르겠다.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어제의 동지’ 안철수·박지원 충돌

안 “주적” 발언 명예훼손 고발... 박 “정치인이 거짓말”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20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이에 맞서 박지원 의원은 “싸움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방선거를 앞둔 양 당의 기 싸움에, 분당 과정에서의 목은 감정까지 겹쳐 있어 이번 충돌은 상당한 여진을 동반할 전망이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안철수 전 대표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주적’이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한 박 의원을 형법 제307조 제2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제2항에 따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안 전 대표와 남 지사는 같은 날 각각 입장을 통해 ‘주적’ 발언이 명백한 허위임을 밝혔을 뿐 아니라 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기 전 남 지사의 탈당을 만류하기 위해 만났고, 남 지사의 한국당 복당 이후에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바른미래당은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바른미래당과 안 전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킨 박지원 의원에 대해 엄중한 수사 및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에는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에 박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안 전 대표가 저의 ‘주적’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한다. 저 역시 안 전 대표와 싸움을 계속 해야겠네요”라고 밝혔다.

민주당 최경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발장 들고 호들갑을 떨어도 보아야 할 박 의원을 형법 제307조 제2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제2항에 따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안철수 전 의원을 겨냥 “정치하면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또 주적 발언 논란에 대해 “저는 공작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안철수, 남경필 두 분 가운데 한 분으로부터 주적 발언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들었던 어떤 분이 전해준 말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갈등 드러낸 한국당 중진회의

洪 독선 반발 20명중 5명 참여

자유한국당이 21일 오후 2시에 중진의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었지만, 내부 갈등 모습만 고스란히 보여졌다. 중진의원 상당수가 홍준표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는 홍 대표가 아닌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재했다. 중진의원들이 최근 홍 대표에게 지난 6개월 동안 중진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다시 열 것을 공개 요구하고, 홍 대표가 이를 거절하자 김 원내대표가 중재자로 나서 이번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진의원들은 전체 20명 가운데 강길부·김재경·신상진·이근현·주호영 의원 등 5명(25%)에 불과했다.

당 대표가 아닌 원내대표 주재로 ‘급’을 낮춘 데 대한 강력한 항의의 표현인 셈이다.

원래 당 대표 주재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는 당 운영 방안에 대해 회의체지만, 원내대표 주재 ‘중진의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는 원내전략을 논의하는 회의체로서 두 회의의 기본 성격 자체가 다르다. 게다가 한국당은 그동안 원내대표 주재로 중진의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한 전례가 없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MB·법원 블랙리스트... 법사위도 난타전

민주 “재벌 특사 수사”... 한국당 “보수정권 정치인만 표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는 이명박(MB) 전 대통령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전직 대통령 2명 구속은 불행한 일이지만, 현실화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일반인이라면 (이미) 구속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 비용 대납 대가로 이강희 전 회장을 특별사면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우리

나라 재벌급 범죄인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 전부 사면을 받았다”며 “특별사면에 대한 대가관계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보수정권 정치인 수사는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며 “그에 비해 수도권 정부 관련 고발사건 등 여당 관련 고발사건은 극장 일반도에 오리무중”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어 “보수정권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단을 만들어서

사색생의 각오로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한다”면서 “현 정부에 불편할 수 있는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라고 따졌다.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 내용과 태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명박 정부 수사와 관련, “언론 보도가 (수사내용과) 사실과 다르지 않나”라는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전체적으로 (수사내용과) 일치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라는 적폐가 심화되고 있다. 광범위한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인권을 짓밟고 있다”며 “방금 장관이 스스로 (피

의사실 공표)를 시인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문제도 쟁점이 됐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원행정처 PC 파일에 특정 판사의 이름을 넣어서 검색한 결과 대선 개입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청와대가 교감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 문건이 나왔다”며 “모든 파일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수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는 민주당 화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PC 강제 개방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돼 있는데 그에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 학부

####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12
	국제한국어교원학과	0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5
사범	유아교육과	1
예능	음악학과	2
	실용음악학과	8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 추가모집** : 원서접수 : 2018. 2. 22(목) ~ 23(금)  
: 전형일 : 2018. 2. 24(토)

### 대학원

####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8. 2. 19(월) ~ 22(목)

② 전형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00	2018. 2. 24(토) 오전 10시
		신학과(Ph.D.)	0	
일반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D.Ed.)	0	
		통합예술치료학과(D.C.S.)	0	
		신학과(Th.M.)	0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0	
		상담심리치료학과(M.A.)	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0	
		사회복지학과(M.S.W.)	0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00	
		한국어교육학과(M.Ed.)	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0	
		실용음악학과(M.A.)	0	

### 신학대학원 편입

####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0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0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2. 19(월) ~ 22(목)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형일 : 2018. 2. 24(토) 오전 10시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중안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 학부 0621605-1114 / 대학원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131로 36